

2020 새 설계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시민 행복 증진 7대 정책 펼치겠다”

행복전담부서 42만 구민 행복 높이기
기업·골목상권 지원해 일자리 창출
‘윤상원 노래극’ 제작 대표 공연으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29일 새해 구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년도는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29일 “민선7기 새롭게 재편한 조직개편을 토대로 행복, 경제, 안전 등 7개 분야에 대한 구정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최우선적으로 행복 구정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 3년차를 맞은 김 구정장은 “2019년도는 광산구정이 순항하기 위한 기본토대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분야별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했던 한해”였으며 지난 1년 성과를 압축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시스템을 마련하여 ‘2019년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한 사례를 꼽았다.

또한 2018년도 개소한 광산구기업지원센터는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총 182억원 규모의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에 광산구가 선정 돼 지역 신성장 동력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정장은 “그동안 구정의 성과를 기반으로 잘 된 것은 더 잘되게 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 구정의 완성도를 높여겠다”며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7개 분야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먼저 김 정장은 광산형 행복정책을 내실있는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최초로 행복전담 부서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행복전담 부서의 사무관인 ‘행복정책관’을 중심으로 42만 광산구민의 행복을 뒷받침할 보편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구민을 상대로 ‘행복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행복도가 낮은 계층과 지역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구 전반의 행복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정장은 시민 행복의 중요한 토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골목상권 지원 및 일자리 창출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정장은 “기업주치의센터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광산경제 아카데미 및 집중 성장 코칭 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관내 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분야’로는 “변함없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더 견고히 하는 등 일상 생활속 안전활동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날로 심해지는 도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주차할짜제 시행 및 일방통행 지정, 공유주차장 확대 등을 추진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에도 힘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문화 생활 분야’의 경우는 지난해 6월 실시한 우산동 영구임대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행복프로젝트’를 본격화하여 대한민국 복지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복지지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여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노래극을 제작해 발표하고 광산구 대표공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매력 있고 인간미 넘치는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월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역 활성화 모델로 만들고, 송정동 복합커뮤니센터와 비아동 복합청사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장은 이어 체육수요가 높은 곳에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운동기구 설치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면책제도 도입 등 정책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관련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구의회의 협력과 시민들의 의지가 없이는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 매일 1회 의장단과 구정을 함께 공유하는 간담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정장은 “시민 행복 구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며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중요한 가치다”며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사업장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광주시, 최대 4억5000만원 지원...자부담 10% 수준

광주시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근원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 42억원을 포함해 모두 75억원이다. 사업장 1곳당 2억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열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산화·연소시키는 축열식연소시설(RTO), 축열식 촉매산화시설(RCO) 방식을 적용할 경우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0%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다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

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 및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지원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월14일까지 시 환경정책과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3월중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관련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나 광주환경포털홈페이지(eco.gwangju.go.kr) 환경행정정보에서 행정정보알림(#2020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을 참고하거나 광주시 환경정책과(613-4151)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아동생활·문화체육시설 공사 후원



이용선 광주시장이 29일 오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주)플러버 기부품 전달식에 참석해 박종오 플러버 대표(왼쪽), 한상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오른쪽)로부터 기부품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플러버 측은 1억5000만원 상당의 아동생활·문화체육시설 공사를 후원한다. <광주시 제공>

남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지도·점검

광주시 남구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이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내 318곳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음식점 내에 설치된 놀이시설 8곳 등이었다.

이외에도 아동 복지시설과 놀이제공 영업소, 종교시설에도 각각 3곳과 2곳, 1곳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는 상·하반기에 1차례씩 각 부서 주관으로 주택 단지 내 놀이시설이 212곳으

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내 놀이시설 53곳, 도심 내 공원에 설치된 놀이시설 39곳 등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수 점검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한 당사자가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매일 1차례씩 놀이시설 구조물의 안전성 및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역내 어린이 놀이시설 가운데 5%를 랜덤 샘플링한 뒤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추가로 점검을 진행하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비롯해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의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북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

광주시 북구가 식품위생 개선·서비스 수준 향상과 영세 식품위생업 상인들을 돕기 위해 나선다. 북구는 “다음달부터 식품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를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북구에서 식품위생업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영업자 중 ▲위생관리 및 설비 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장 ▲어린이보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또는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하는 영업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지정업소 또는 지정을 준비하는 영업장 등이다. 융자업소 선정은 현장조사와 북구 식품

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면적 100㎡미만의 소규모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비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모범음식점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 종류와 한도액은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 1000만원부터 3억 원까지이며 모범업소의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을 위한 육성 자금의 경우 1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이율은 연1~2%의 저금리를 적용해 5000만 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000만 원 이상은 1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상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모집

2월7일까지 5개 자치구 접수
총 50명 ... 체납 실태조사 등

광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동구 6명, 서구 11명, 남구 7명, 북구 13명, 광산구 13명 등 모두 50명이다. 29일부터 2월 7일까지 5개 자치구에서 접수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은 자치구에 소속돼 세무공무원과 함께 소액 체납자에 대한 전화납부 안내,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자

량 변호판 영치 보조 활동을 하게 된다. 상반기에는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근무시간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 조정한다. 하반기는 9월~ 10월 말 운영 예정이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와 체납차량 변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액 5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정리반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